

서호인의 좌측담장



계산 불가

프로 야구 감독들은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쉽게 하고는 한다. “계산이 되는 선 발이 없다.” “계산이 서는 투수를 쓰고 싶다.” “저 타자는 한 시즌 계산이 된다.” 그렇구나, 계산을 하고 싶으시구나. 팬들도 마찬가지로이다. 계산이 되는 야구를 보고 싶다. 정확한 계산은커녕 어림잡작도 되지 않은 채 공포와 스틸에 잠식되다가 역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다고 깨닫는 결말도 치닫은 야구에 이제는 지쳐 버렸다. 올 시즌 타이거즈의 야구가 그렇다. 도대체 계산이 되지 않는다. 도저히 계산을 할 수가 없다. 하는 계산마다 수틀리기 일쑤다. 감독님은 알고 있을까. 팬들의 이런 마음을 어디에 인터뷰할 데도 없는 이런 답답한 속을.

이 팀에는 견고한 중간 투수, 강력한 마무리 투수가 없다. 없다는 사실이 당연하게 여겨질 정도로 수년째 그렇다. 어쩌다 나타난 투수는 한두 해 반짝하고 사라진다. 다른 팀에서 영입한 투수는 여기에만 오면 이전의 실력이 반 토막난다. 에이스는 팀의 허점을 채우려고 불펜 아르바이트를 뛰다 야구가 상한다. 팬들은 밤 아홉시만 되면 심장이 떨려가진다. 이거 또 역전당하는 거 아니냐? 설마가 사탐 잡는다더니, 이미 여러 사람 잡혀 있다는 후문이 다. 7월 7일 토요일 경기가 그랬다.

그 주말에는 오랜만에 챔피언스필드에 갔다. 고향을 떠나기 전에는 무등경기장에 가는 것이 일상이었지만, 고향을 떠나 경기도민이 되어 버린 지금은 광주까지

찾아와 야구를 본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이벤트가 되었다. 활발한 타격전이었다. 7회 극적으로 경기를 뒤집었지만 8회 작년에 트레이드되어 온 투수가 마운드에 올라 하염없이 주자를 내보내더니, 뒤이어 올라온 어깨가 상한 에이스가 상대 4번 타자에게 통한의 홈런을 맞았다. 아, 계산이 선다는 게 이런 뜻인가. 어떤지 그럴 것만 같았는데, 역시 야구에서의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고 나는 이제 이런 슬픈 예감 같은 거 지긋지긋하다는 말이다. 오랜만에, 좀 이겨 주지 말라다.

사실 오랜만에 찾은 고향의 야구장에서 내 마음은 계산이나 수식, 예측과 논리 같은 것과는 멀찍이 떨어져 있었다. 도리어 조금은 감상적인 면이 있었다. 10대와 20대의 추억이 어린 옛날 경기장 옆에 들어선 최신희 구장은 편리하기 이루 말할 데 없었다. 주위의 교통은 혼잡했고, 주차를 하느라 서로 신경전이 대단했지만 어쨌든 이제 야구를 본다는 설렘에 야구장 주변의 공기는 훈훈했다. 나는 두 딸에게 타이거즈 유니폼을 입고 인파를 헤집으며 자리를 찾아 나섰다. 직원들의 친절한 안내로 미취학 아동을 데리고도 이동에 큰 불편함은 없었다. 무엇보다 동선 어디에서든 야구장을 내려다볼 수 있는 구조가 좋았다.

신축 구장 바로 옆에 있는, 이제는 지난해 역사가 되어 버린 그 골동품 같은 건축물에서 타이거즈는 아홉 번 우승을 이뤘다. 김성한, 선동열, 이종범 같은 선

수들의 전성기도 그곳에서였다. 굽힌 무릎이 앞사람 등에 닿았던 의자 간격, 페인트가 다 벗겨진 콘크리트 기둥들, 소주 냄세가 자욱하던 1루와 3루 출입구, 팩 소주를 든 채 취해 버린 아저씨들로 채워졌던 관중석... 이제는 지난 일인 것이다. 지금의 내가 그때의 나와 완전히 다르듯이, 그때의 타이거즈와 지금의 타이거즈는 어쩌면 다른 팀일지도 모른다. 호시절의 추억, 지난날의 기억을 역사와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계승하고 있지만 시대의 바뀌었고, 타이거즈는 왕조를 구축할 만큼, 그러니까 계산이 설 만큼 강한 팀이 아니다. 어쩌다 한 번 우승을 했지만 그것은 여러 운수, 예컨대 우주의 기운 같은 게 불어와 생기는 일인 것이다. 우승 다음 해에 이렇게 가을 야구 자체를 걱정하는 팀이더니, 계산이 안 되

는, 그저 그런 팀인 것이다. 8회 초 시작과 동시에 불현듯 역전의 기운을 느낀 나는 경기보다는 경기장의 분위기와 사람들의 표정을 읽어 내는 데 집중했다. 많은 관중은 홈 팀의 승리를 바라지 않았다. 예전처럼 지고는 못살겠다는 비장함은 느껴지지 않았다. 대형 전광판은 그날의 사사구와 실책·실점으로 어지러웠지만 총천연색으로 빛나고 있었다. 아까 그 친절환 직원들은 역시나 친절 한 어조로 경기장 내에서 켄 올슨 사용이 금지되고 있음을 알려 주었다. 1루 응원석에는 서울에서 여기까지 고생하며 오셨을 원정 팬들이 열심히 북을 두드리고 목

청껏 응원가를 불렀다. 어떤 관중은, 타이거즈가 수비 중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박자에 몸을 흔들기도 했다. 야구장에 왔으면 야구를 즐겨야 한다. 괜한 계산이나 하다가 계산에 맞지 않는 결과에 실망하고 분노해 봤자 본인만 손해라는 말.

두 딸의 컨디션이 좋지 않아 8회 수비 도중 일찍 경기장을 나섰다. 챔피언스필드 근처는 어지럽게 주차된 차들로 몸살이었다. 환호인지 탄식인지 모를 소리가 경기장 쪽에서 들렸는데, 그때 윤석민이 김현수에게 만루 홈런을 맞은 것이었다. 아, 정말 계산이 서지 않는구나. 차라리 반대로 계산해야 맞는 거구나, 홀로 골똥할 때 아이들이 경기장에서 몇 번 부른 응원가를 흥얼거리다. 다섯 살, 여섯 살 딸들이 어찌피 틀리고야 말 계산을 하는 라 정신이 없는 아빠를 대신하여 이 경기를 마무리해 주고 있었다. 다음 직관에는 승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까? 알 수 없지만, 이 팀은 계산이 되는 팀이 아니게 되어 버렸고, 나는 이제 그 계산 불가의 상황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기로 했다. 그저 괴상하게 예전때 당하지 말고, 지는 경기는 순순히 졌으면 하는 위약마저 드는 것이었다. 다다다다 불은 차들 사이에서 전진과 후진을 거듭하며 겨우 도로에 나선다. 차의 후미에 챔피언스필드의 조명만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다. (시인)

※ 이 칼럼은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을 받았습니.

의료칼럼



정지연 상무힐링재활요양병원장 가정의학과 전문의

오래 사는 것보다 건강하게 살아야

놓아두기도 한다. 하지만 일제 강점기에 고려 시대의 풍장 풍습을 강제로 산 채로 버리는 ‘고려장’으로 왜곡했다. 일제는 풍장을 고려장으로 왜곡해 버려진 무덤을 파헤쳐도 된다면 문화재 도굴을 정당화했다.

“일인들이 고려장을 파고 사기를 내어가는 고로 온전한 고춧이 없다더라”고 1908년 11월 11일 대한매일신보는 일본인들의 고려장 도굴을 폭로했다. 여기서 고려장은 고려 시대의 고분을 뜻한다. 일본이 주장했던 산 채로 버리거나 묻는 고려장은 없었다. 최근 병든 부모님을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모시는 것을 ‘현대판 고려장’이라고 한다. 하지만 ‘긴병에 호자 없다’는 속담처럼 아무리 부모라도 오랫동안 병시중을 하노라면 소홀히 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맛벌이 부부가 집에서 부모님을 모시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요양 시설에 모시는 것이 오히려 효도라는 소리까지 듣는다. 다행히 병든 부모님을 요양 시설에 모시는 것이 불효라는 편견은 없어졌다.

우리나라는 급격한 고령화로 심각한 사회 문제가 제기 되고 있다. UN에서는 총 인구에 대한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

이 7%-14% 미만이면 ‘고령화 사회’, 14%-20% 미만이면 ‘고령 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로 구분한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고, 2017년에 고령 사회로 진입했다. 또한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노인 행복을 잃으면 도서관 하나를 잃는 것과 같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노인은 우리 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자산이라는 뜻이다. 지금 70대, 80대, 90대 노인들은 가장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왔다. 일제 강점기에 태어나서 전쟁의 피난살이와 가난의 보릿고개를 견디며 성장했다. 5·16과 유신 그리고 5·18의 아픈 역사를 헤치며 자녀들을 가르쳤다. 그런데 절대적 빈곤을 넘어서자 상대적 빈곤이 기다리고 말며 병들고 늙어 버렸다.

‘늦었을 때가 가장 빠르다’는 속담처럼 조상을 위해, 자녀를 위해 한 평생을 바친 노인들은 이제는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살아야 한다.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건강이다. 현대 의학이 아무리 발전했어도 질병에 걸리면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건강을 해치는 주범으로 잘못된 생활습관, 스트레스, 비만, 흡주, 흡연 등을 꼽는다. 반대로 주범을 피하면 건강을 유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건강하게 장수하기 위해서는 먼저, 규칙적이고 균형 잡힌 식생활이 필요하다. 채소, 과일, 생선 등을 많이 섭취하고 지방, 당분, 염분 등을 피해야 한다. 하지만 좋은 것도 지나치면 곤란하다.

둘째, 규칙적인 운동이다. 서있기, 걷기, 뛰기, 계단 오르기, 수영, 맨손 체조, 스트레칭 등 1회에 20분-30분, 1주일에 3회 이상 규칙적인 운동이 필요하다.

셋째, 정기적인 건강 점검으로 각종 암은 물론 성인병과 노인병을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 뇌졸중, 고혈압, 심장병, 당뇨병, 폐렴, 골다공증, 관절염, 치매 등 노년기에 잘 생기는 질환은 여러 질병들이 동반해서 발생하며 대부분 완치하기 어렵다.

돈을 잃으면 적게 잃은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은 것이라고 했다. 본인의 건강은 의사나 자녀가 지켜주지 않는다. 스스로의 건강은 스스로 지켜야 한다.

기고



류진항 (주)와이드팜 상임고문

100세 시대의 명암

조기 발견과 치료는 곧, 불치의 영역을 축소시키면서 100세 수명을 가능케 하는 장수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운명의 여정인 길흉화복과 생로병사가 이미 정해져 있다는 사주팔자론이 더불어 변천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연도별 평균 수명을 보면 1500여 년전 삼국시대에는 25세가 평균 수명이었으며, 그 후 1800년대에는 37세, 1900년대에는 45세에 이르다가 급이아 2010년대에 이르러서는 80세를 기록할 만큼 괄목할 수명의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다 보니 장수에 따른 질병(長病)과 노령화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분주한 사회의 일상을 살고 있는 지식들에게는 병환의 부모님이 계산 집안은 병간호와 수발 때문에 가정의 평화가 깨진다고 하니, 일부분 ‘장병에 호자 없다’는 속설이 인용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병환의 부모님을 돌보게 하는 요양병원이라는 전문 의료 시설이 성업 중에 있다. 생각해 보건데, 평생을 살아온 정든 내 집이며 자식 손자 친지 등 만상(萬象)을 뒤로 하고 다시 돌아간다는 희망을 포기한 채 낯설은 시설에서 쓸쓸

히 계실 부모님을 생각할 때 자식은 가슴 미어지는 처절한 슬픔이 있을 것이다. 그런가 하면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과 영별하는 장례식장에서는 천수를 다 하셨다며 낙담한 표정의 상주들을 가끔 보게 되는 요즘의 세대가 대비가 된다. 이를 장수 시대가 낳은 어쩔 수 없는 불효의 단면이라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안타까운 풍속도가 아닐 수 없다.

아무튼 애틋의 백세 시대가 필자언정 최소한의 초상 장사 기간 동안만이라도 부모님을 잃은 슬픔에 통곡하며 근신하는 것이 영원히 이승을 떠나시는 분에 대한 기본 예의며 최소한의 자식 된 도리가 아니냐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

우리 인간 삶에 있어서 관혼상제 중 상례를 가장 중중히 여기는 까닭은 한 인간의 일대기를 총 정리하는 지엄한 종말의 장이 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기에 문상객 또한 진중환 행동과 옷차림을 하고 문상하는 것이 예의 질서가 아닐까 싶다. 효는 백행(百行)의 근본으로서 부모님을 공양하는 것이 그 첫 번째라는 증자(曾子)의 말씀이 있다. 효행에 대해 각본이 있을 수 있으나 부모님께 근심을 드리지

않는 것이 담백한 의미의 효도가 아닐까 싶다. 노망한 부모님을 즐겁게 해 드리기 위해 80세가 다 된 나이에 때때옷을 입고 어릿광대 노릇을 했다는 중국의 노래자(老萊子)를 효성(孝孺)이라 칭송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을 것이다. 눈앞에 보이는 것이 자식이라는 사회적 통념이라면, 가까에서 부모님을 모시며 봉양하는 일은 지순한 효도가 될 것이다. 그러나 세계화 시대와 핵가족 중심 사회로 변천되는 현대 사회에서는 지근(至近)에서 봉양하는 효도는 시간적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되고 있으니 이를 불효라고 이르기에는 억울함이 있다. 다만, 얼마나 지 편리하게 발달된 교통과 통신이 있으니 종종 찾아 뵙고 살펴서 외로운 백세 시대 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자식의 소임이라는 소박한 견해를 드린다.

오직 의지와 자량이 전부가 되는 자식은 노구의 부모님께는 든든한 후견인이며 존제 가치를 드리는 소중함이 있다. 노령의 부모님 또한 가시는 날까지 자식에 금은보화를 남겨 주는 것 보다 병약해서 신세지지 않는 건강한 모습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강조하고 싶다.

社說

휴가철 전남 연안 여객선 안전 점검 강화를

지난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는 한국 사회에 큰 경종을 울렸다. 선장은 고교생 승객들에 앞서 배를 버린 채 탈출했고, 해양경찰 역시 구조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등 우리 사회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뼈아픈 참사 이후 여객선 안전 문제는 물론 해양경찰과 각 기관의 구조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뜯어고치는 계기가 됐다.

그러면 지금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본사 기자가 완도항에서 청산도행 연안 여객선에 탑승해 보았다. 결과는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이다. 여객선사와 해양경찰 그리고 승객의 안전 의식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치 ‘세월호’의 교훈을 모두 망각한 듯한 모습이다. 우선 선사 직원은 997급 차도선에 승선하는 승객들의 승선권만 대충 훑어보고 신분증은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았다. 탑승 후에도 승객 안전을 위한 배려 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승객들도 접안하

기 전부터 뱃머리에 미리 나와 있었다. 높은 파고에 배가 흔들리면서 일부 승객은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기도 했다. 또 승객들이 하선할 때도 차랑과 뒤섞여 출구로 몰리면서 위험한 상황에 노출됐다.

이러니 사고가 나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7일 신안 팔금도 고산 선착장에 접안하는 과정에서 뱃머리에 미리 나와 있던 승객 49명이 서로 떠밀려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 해양 레저 붐이 일면서 낚싯배 등의 선박 충돌 사고도 잇따르고 있다.

작은 실수로도 대형 선박 사고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 ‘매뉴얼’이 완벽해도 현장에서 지키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여객선사와 해양경찰 모두 선박과 승객의 안전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 선박을 이용하는 승객들 역시 스스로 안전 의식을 가져야 한다. 선박 안전 문제는 선사와 해경, 승객 모두의 몫이기 때문이다.

유통·관광 기반 구축 자금 역외 유출 막아야

광주·전남 지역 주민들이 다른 시도에서 돈을 쓰는 ‘지역 자금 역외(域外) 유출’ 규모가 해마다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수도권에 집중됐던 소비 지역이 대구와 부산 등 영남권으로 확대되고 지역 간 유출·입 불균형도 심화하는 추세다.

이는 지난해 광주신세계 카드 결제 내역 분석 결과 확연히 드러난다. 이 지역 소비자가 타 지역에서 결제한 금액이 처음으로 1000억 원을 넘어서 지난 2009년(98억 원)의 열 배에 달한 것이다. 전체 금액 중 서울 신세계강남점에서 400억 원, 부산 센텀시티에서 180억 원, 대구 신세계에서 54억 원을 각각 소비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지난해 신세계카드를 지닌 다른 지역의 고객이 광주에서 결제한 금액은 162억 원에 그쳤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지난 2013년 신용카드 사용액을 분석한 결과도 다르지 않다. 광주·전남 지역 신용카드 가

맹점 매출액은 15조 원인 반면 지역민의 신용카드 이용액은 20조 원으로 순역외 소비액이 5조 원에 달했다.

문제는 광주와 서울 간 KTX-SRT 개통과 광주대구고속도로 확장 등 광주와 영남을 잇는 교통망이 잇따라 확충되고 대구·부산 지역에 대형 쇼핑시설이 늘어나면서 역외 유출 폭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역 간 이동이 쉬워지면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광주·전남 서비스·유통 산업이 역풍을 맞고 있는 셈이다.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으로 연결되면 서 선택 폭이 넓어진 소비자들은 인프라가 뛰어난 곳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백화점 판매 시설을 기준으로 한 유동 인프라는 대구가 광주에 비해 4.2배, 부산은 6.3배나 많다고 한다. 지역의 소득과 자금이 역내에서 선순환되고 타 지역 소비자를 끌어올 수 있도록 차별화되고 특화된 유통 및 관광 산업 기반 구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無等鼓

“이렇게 좋은 곳을 왜 이제야 알았을까?” 2년 전, 광주가톨릭평생교육원을 처음 찾았을 때 들었던 생각이었다. 이름 드리 플라타너스와 메타세콰이어가 그림처럼 펼쳐져 있는 그곳은 유럽 어느 공원이 못지않았다. 커피 한 잔 들고 벤치에 앉아 있자니 앞으로 ‘나만의 위안의 장소’로 삼아도 좋겠다 싶었다. 이후 취재를 위해 다시 교육원을 찾았을 땐 또 다른 느낌을 받았다. 광주가톨릭대학교였던 교육원 본관 건물은 1962년 완공됐다. 가장 인상

장소의 발견

을 통해 5·18과 이 그대로 담긴 지하역 다. 나만 그런 게 아닌 모양이었다. 영화 제작자의 눈에 띄어 ‘인사동 스킨들’ 등이 촬영됐고 눈 밝은 예술가들도 이 공간을 탐냈다. 권승찬 작가는 이곳에서 전시회를 열기도 했다. 며칠 전 인상 깊은 또 다른 ‘장소’를 발견했다. 교육원 바로 인접한 광주국군병원 옛터였다. 1962년 국군광주통합병원으로 국군주병원에 탄생 처음 발을 뚫고 그곳에서 새로운 역사를 만나게 되는 이들이 많을 듯하다. 예술은 그런 것이다. 잊힌 공간에 생기를 부여하고, 사라져 가는 역사를 다시 복원해 내는 것. 올 광주비엔날레는 광주국군병원을 ‘발견하게 해준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김미은 문화부장 mekim@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역(국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 49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여론매체부 220-0652	기획관 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예향부 220-0692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64	사건부 220-0693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체육부 220-0697	(FAX 02-773-9335)	
※국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